

울산 정밀화학소재 부품단지 건설

도시공사, 학남지구 266억원 투입 ... 화학물질·부산물은 공동처리

울산 울주군 학남리 일원에 들어서는 학남 정밀화학소재 부품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.

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, 울산테크노파크 및 관련기업 12사는 9월28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학남 정밀화학소재 부품단지 조성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.

울산도시공사가 총 266억을 들여 온산국가산단 학남지구 13만1208㎡ 규모로 2012년까지 개발대행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.

또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각종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준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부담과 시공사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했다.

학남 부품 산업단지는 클린 및 무배출 산단(Clean & Zero Emission Complex) 기조 아래 수질과 화학물질, 부산물 등을 공동처리하고 스팀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.

울산시는 부품 산업단지 조성으로 화학산업이 공해산업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울산이 핵심 소재·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학남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은 의약소재, 고분자촉매, 정보전자, 나노소재, 자동차소재, 친환경 도료 등이며 입주기업은 위즈캠과 피씨아이, 대미, 대성INT 등 12사로 알려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28>